

art

JAN CULTURE

New Decade

2010 1

Hot Artist 29



새로운 10년, 새로운 비전

큐레이터가 뽑은 떠오르는 작가 29인



부푼 마음을 끌어안고 '뉴 밀레니엄'을 맞이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그 10년 동안 동시대 예술은 글로벌리즘의 정착, 신자유주의의 범람, 테크놀러지의 발전, 포스트식민주의의 잔재 등 또 다시 재편된 환경에 놓였고, 시대의 정찰대이자 기수인 미술가들은 새로운 비전을 세상에 끊임없이 제시해 왔다. 급변하는 담론과 형식을 반영하는 예술 행위들은 시각은 물론 청각 후각 촉각 등 우리들의 감각을 총체적으로 일깨우려고 한다. 이러한 동시대 미술을 수용하는 장소 역시 변화하고 있다. 미술관과 갤러리 등 전시 기관들은 소통이 가능한 유동적이고 유기체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생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다시 맞이하게 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지금, 변화를 멈추지 않는 세계미술의 지형도를 또한 번 그려볼 차례다. 내일을 이끌어 갈 작가,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해 내는 큐레이터, art는 국제 무대를 발판 삼아 활동하는 한국 큐레이터 29명을 초대해, 그들이 전망하는 국제 미술계의 흐름과 그 방향을 주도할 작가를 1명씩 소개하도록 했다. art는 추천작가 29명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10년 세계미술의 비전을 찾아 나선다. 큐레이터 29명의 추천 키워드를 요약한다.

2000년 이후 글로벌리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완전히 파고들었다. 추천 받은 29명 작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그들의 출생 국가가 북미나 서유럽에 몰려 있기보다는 아시아, 남미, 북유럽과 동유럽 등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작가의 국적은 동시대 미술에서 의미를 잃고 있다. 추천작가 중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타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해 작업하는 작가들이 대다수이다. 또한 아예 다른 국가로 이주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 태생 자체가 '다국적'이라고 봐야 하는 작가도 있다. 지역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민족적 정체성은 빛을 잃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 간의 네트워크는 강화되었다. 특히 통신과 운송의 발전은 아트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작가와 기획자는 이메일, 메신저, 스카이프(인터넷 화상전화)를 통해 회의를 하고, 역시 웹을 통해서 작품의 데이터(영상, 사진의 경우)를 전송해 전시에 출품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글로벌리즘이 가장 가시화된 장소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일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대형 전시장은 전시 관람을 위한 장소라기보다 각국에서 몰려온 작가와 기획자, 컬렉터 등 미술인들의 '미팅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전시를 위해 작가나 큐레이터를 섭외하기도 하고, 공공 혹은 사적 재산으로 구매할 작품을 흥정하기도 한다. 그곳에서 국가간의 경계는 무의미하며, 각 개인은 오로지 단독자로서 서로의 이해 관계에 따라 구속 받고 또 구속하게 된다. 세계 모든 장소가 '자유 무역지역'인 동시에 '공동경비구역'인 셈이다.

전지구적 사회 질서는 해체와 구축을 반복하며 더욱 복잡다단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전쟁과 테러에 대한 불안과 공포, 문화적 범주 안에서 혼성과 혼종은 이제 그 자체가 환경이 되어 버렸고, '떠돌이'들에 의해 생겨난 유목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우리의 관심을 중심에서 주변으로 인도했다. 또한 앞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나간 자취에 남아 있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자기 비판과 함께 타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급변화한 사회적 컨텍스트를 모티프로 하는 작가들의 작품에는 대립 갈등 타협 혼돈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예술이 자본과 정치와 밀접해 지는 오늘의 상황에 대한 작가들의 대응 방식은 두 가지 양상으로 갈라진다. 미술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그리며 이러한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미술을 시대를 비판하는 저항의 도구로 이용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과거처럼 '정치적 올바름'을 과격하게 외치기보다는 개인적 체험을 객관화하는 '논리'를 세우려는 태도가 강조된다. 이때 수반되는 작업이 미시적 접근을 통한 연구, 리서치, 아카이빙이다.

2010년 이후의 작품 경향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형식의 변화이다. 최근 현대미술은 공공미술 퍼포먼스 음악 건축 디자인 그래피티 오픈소스 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20세기의 미니멀리즘 프로세스아트 개념미술보다는 관계성과 상호 작용에 대해 주목, 단순한 관객으로부터의 인터랙션이 아니라 관객의 참여 자체가 작품을 완성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가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어시스턴트팀과의 협업을 통해 오리지널리티를 거부하는 동시에 탈신화화와 수행성을 극대화한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미술가의 역할이 프로듀서이자 이론가, 행정가 등으로 확대되었다. 결과물 역시 전시에 조형물을 출품하는 것 외에, 웹사이트 출판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다. 지적 유희를 즐기며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오늘의 작가들은 창조와 상상력을 통해 미학의 개념을 삶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며 자칫 빠지들기 쉬운 엘리트주의를 빗겨 나간다. 일상과 사회가 교차하는 지점을 모색하거나,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모아 행위와 언어 사이의 급진적인 '상행'을 제안하는 최근의 움직임들의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0년 초반, 셋별처럼 떠올랐던 미디어아트는 최근 하이테크놀로지를 신봉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이면을 들춰내며 다소 주춤하는 듯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영상 문화가 완전히 현대미술의 환경으로 정착하게 된 지금, 뉴미디어아티스트들은 시각적 스펙터클을 추구하기보다는 리얼리티와 시뮬라크르,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가상공간의 디지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작가들과 또한 이들을 발굴해 새로운 미술사를 형성하는 큐레이터들은 서로 간의 예술적 신의를 바탕으로 동료애를 형성, '전위'를 향해 함께 또 다시 한 길을 나아간다.

| 글 · 편집부



제레미 델러 (이라크전에 대한 대화) 2009 뉴욕 뉴뮤지엄
 왼쪽 페이지 위 · 차오 페이 (차이나 트레이시- 아이 미러) 영상
 28분 2007 Courtesy of Vitamin Creative Space | 가운데 · 랜디 & 캐트린 (Super Sweet-Twistee Treat-16 Flavours-Its A World In It Self) 2007 | 아래 · 다니엘 가르시아 앙두하르 (개인적 시민 공화국 프로젝트) 2003 앞 페이지 플라비아 다 린 (무제) 랩다프린트 100×100cm 2006~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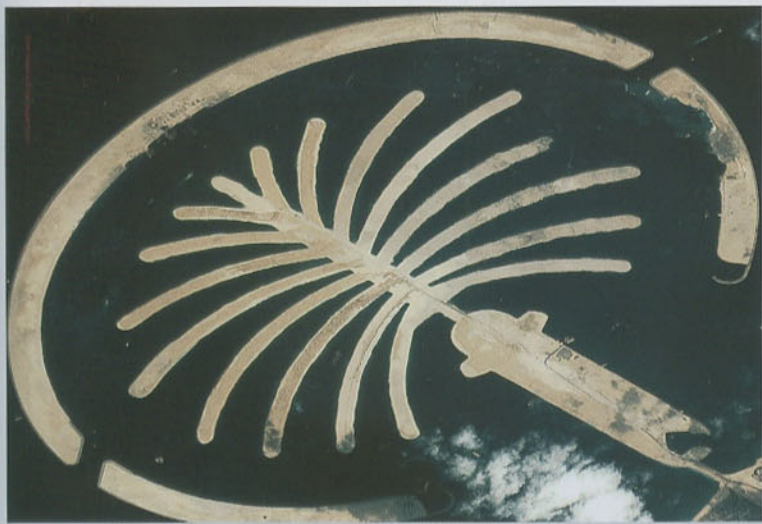
추천자	작가	국적	출생연도	성별	장르	페이지
김홍희	올라퍼 엘리아스 Olafur Eliasson	덴마크	1967	남	설치 조각	88
이대형	플라비아 다 린 Flavia Da Rin	아르헨티나	1978	여	회화	90
김승덕	레이첼 해리슨 Rachel Harrison	미국	1966	여	조각 회화	92
문지윤	로만 온닥 Roman Ondak	슬로바키아	1966	남	설치	94
최빛나	에이 아라카와 에이 Arakawa	일본	1977	남	설치 퍼포먼스	96
서은아	차오 페이 Cao Fei	중국	1978	여	미디어아트 사진 퍼포먼스	98
조주현	유이치 요코야마 Yuichi Yokoyama	일본	1967	남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회화	100
최경화	웬델리엔 반 올덴보그 Wendelien van Oldenborgh	네덜란드	1962	여	영상	102
김지연	GLR Graffiti Reserch Lab	미국	-	그룹	그래피티 미디어아트	104
김윤경	씨엘 플로이예 Ceal Floyer	파키스탄	1968	여	설치 영상	106
임근혜	제레미 델러 Jeremy Deller	영국	1966	남	퍼포먼스 음악 설치 등	108
김희진	히토 스타이엘 Hito Steyerl	독일	1966	여	설치 영상 저술 등	110
신보슬	다니엘 가르시아 앙두하르 Daniel García Andújar	스페인	1966	남	미디어아트 웹프로젝트	112
박만우	로랑 그라스 Laurent Grasso	프랑스	1972	남	설치 영상	114
양은희	만다나 모가담 Mandana Moghaddan	이란	1961	여	설치 영상	116
이원일	치우 쯔지에 Qiu Zhijie	중국	1969	남	설치	118
배명지	안네 올로프손 Anneè Olofsson	스웨덴	1966	여	사진 영상	120
김선정	카메론 제이미 Cameron Jamie	미국	1969	남	영상 설치	122
강승환	리암 길릭 Liam Gillick	영국	1964	남	설치 영상 저술 등	124
한금현	예페 하인 Jeppe Hein	덴마크	1974	남	설치	126
김준기	첸 광 Chen Guang	중국	1971	남	회화	128
김정연	마이클 엠그린 & 잉가 드래그셋 Michael Elmgreen & Ingar Dragset	덴마크/노르웨이	1961/1969	듀오	설치	130
우혜수	토마스 데만트 Thomas Demand	독일	1964	남	사진	132
서진석	이리나 코리나 Irina Korina	러시아	1977	여	설치	134
양지윤	에어아웃 믹 Aernout Mik	네덜란드	1962	남	영상	136
홍보라	랜디 & 캐트린 Randi & Katrine	덴마크	1974/1976	듀오	설치 건축	138
신현진	AVPD	덴마크	1974/1974	듀오	설치	140
고원석	마코스 노박 Marcos Novak	그리스	1957	남	설치 건축 음악 등	142
김장연	리처드 스트라이트메이터-트랑 Richard Streitmatter-Tran	베트남	1972	남	설치 미디어	144

Daniel García Andújar

by Nathalie Boseul Shin



테크놀로지의 이면을 탐구하는 미디어아티스트 서울스퀘어와 광화문 광장의 건물 외벽은 LED 전광판으로 둘러싸이고, '당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화려하다'는 말처럼 서울의 밤은 낮보다 밝고 화려한 빛으로 가득하다. 전광판을 채우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미디어아트가 바로 2010년 지금, 한국 미디어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스페인 출신의 미디어아티스트 다니엘 가르시아 앙두하르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소비하는 것이 미디어아트라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보이는 현상 이면의 구조를 들춰내려 한다. <인간을 위한 기술(Technology To The People, ttp)> 프로젝트가 보여주듯, 그는 누가 진정으로 테크놀로지에 접근해 있는지, 정보 소유의 격차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인 양상, 권력의 다툼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다룬다. 가장 최근 프로젝트인 <포스트캐피탈 아카이브(Postcapital Archive)>(1998~2001)는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9.11사태에 이르기까지의 특정 기간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구축한 아카이브 프로젝트로서, 아카이브형 전시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 기술의 소비 혹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실험에 급급한 나머지 그 이면의 논리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미디어아트 계에 그의 작업이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인터랙션에 질린 관객들에게도 지적인 상호작용을 요하는 유형의 작품이라는 것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카탈로니아관에 출품되었다는 점 역시 그의 작업을 계속 주시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Really quick Al Rostamani

FOR NATURE, EVERYDAY IS 9/11



위 왼쪽 · <포스트캐피탈 포토몽타주(Postcapital Photomontage)> 2008 | 오른쪽 · <포스트캐피탈 포토몽타주> 2008
아래 · <e-manifesta.org> 제4회 마니페스타 전시 장면 2002 (Photo:Grend Bodt) 왼쪽 페이지 전시 <포스트캐피탈> 슈투트가르트 뷔르템베르گی세르쿠스스페어라인 (WKV) 설치 장면 2008

■ 다니엘 가르시아 앙두하르
1966년 스페인 알모라디 출생. 현재 바르셀로나 거주. 1980년대 후반부터 비디오 영역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1996년부터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TTTP> (포스트캐피탈 아카이브) 등 진행. 2000년 홍콩 마이크로웨이브페스티벌, 2006포르테스파나 2009베니스비엔날레 등 참가. 1999년 칼스루헤 ZKM, 2006년 도르트문트 HMKV 등에서 전시. 한국에서는 2009년 토탈미술관에서 워크숍을 진행, 2010년 <포스트캐피탈 서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 신보슬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아트센터나비 큐레이터, 2004미디어시티서울 전시팀장 역임. 2007년부터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404 Object Not Found) 등 미디어 전시 기획. <On_Difference>(2006, 슈투트가르트) 덴마크비디오아트페스티벌 <Subtle Whispering> (2007, 서울) 노순택 개인전 <비상국가>(2008~2009, 슈투트가르트 바르셀로나) 등 국제전을 기획했다.